

미·EU 외교수장 외교 압박에도 중동 확산 '일촉즉발'

블링컨·보렐 '확전 막자' 연쇄 회동...이스라엘 '휴전 없다' 천명 헤즈볼라·후티 개입 움직임·이란 테러 등 미국 압박 강화 요구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7일(현지시간)로 발발 3개월이 지났음에도, 휴전은커녕, 주변으로 포화가 번지고 있다. 미국의 외교 수장이 네차레나 중동으로 날아가 "확전을 막자"며 동분서주했음에도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승리 없이 휴전 없다'며 마이웨이를 천명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동 순방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일 튀르키예에 도착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등과 회동한 뒤 카타르로 건너가 가자지구 해법을 타진했다.

그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자지구 전쟁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이번 순방에서 닷새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집트를 돈다.

동시다발로 유럽 외교 수장들도 중동을 찾아가 외교 압박에 나섰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7일 레바논을 방문해 "역내 분쟁에서 승자는

없다"고 강조했고 같은 날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이스라엘을 찾아 저강도 군사작전을 통한 민간인 보호를 촉구했다.

베어보크 장관은 8일에는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마을을 방문한 뒤 라말라에서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이집트를 거쳐 10일에는 레바논을 방문한다.

국제사회의 분주한 행보는 가자지구에서 치솟은 전운이 주변국으로도 번질 조짐이 수면 위로 드러난 와중에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을 이끄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마스 제거, 인질 송환, 가자지구 내 위협 제거를 세 가지 조건으로 제시했다.

발을 이어가면서 지난해 말에는 미국과 직접 교전을 벌였고, 새해가 되자마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하마스 수뇌부가 드론 공격에 살해당하면서 접경지를 넘어 '안방'까지 충돌 현상이 됐다.

곧이어 지난 3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국민 영웅'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추모식을 겨냥한 의문의 폭발 테러로 90여명이 숨지고 약 280명이 부상하면서 중동 정세는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하지만 '피의 보복'을 선언한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는 없다"며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을 이끄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마스 제거, 인질 송환, 가자지구 내 위협 제거를 세 가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민심은 하마스 섬멸 작전을 여전히 지지하는 분위기로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중동 국가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휴전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7일 블링컨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휴전에 나서도록 미국이 압박할 것을 요구했다.

아랍권은 특히 전후 가자지구 통치 등 장기적인 의제를 논의하기 전 일단 전쟁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최우방인 이스라엘에 지상전 축소, 민간인 피해 최소화 등을 요구하는 선에 머물면서 가자지구 주민이 겪는 참상은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연합뉴스



전면 운항 금지된 보잉 737-맥스9 최근 비행 중 동체에 생긴 구멍 때문에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9 여객기가 6일(현지시간) 정비를 위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대기하고 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7일 보잉 737 맥스9 기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동일한 기종 항공기 171대의 전면적인 운항 금지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일본 구조대원들이 7일 이시카와현 와치마시의 불탄 시장 주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는 동안 눈이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민 54%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 반대"

여론 분열 극심...트럼프, 1·6폭동 가담자 바이든에 석방 요구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 문제를 심리키로 한 가운데 절반 이상의 미국 국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에 반대하는 것으로 7일(현지시간) 나타났다.

CBS가 1·6 의사당 폭동사태 3년을 맞아 유고브와 함께 2157명을 대상으로 지난 3~5일 조사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가 '각 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은 46%였다.

지지 정당 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81%가 트럼

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에, 공화당 지지자의 9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유지에 각각 찬성했다.

무당층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자격 유지(56%)가 박탈(44%)보다 높았다.

CBS 여론조사에서도 3년전 발생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분열이 재확인됐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는 1·6 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약화하는 모습이다.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의사당 난입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는 답변은 2021년 51%에서 현재 32%로 줄어들었다. 또 전체 공화당 응답자의

66%는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을 사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사면 찬성(38%)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 주 유세에서 1·6 의사당 폭동 사태로 구속된 사람들을 "인질"이라고 부르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조, 1·6 인질들을 석방하라. 그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아가 CBS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대선을 둘러싼 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51%만 대선 패배가 평화적으로 수용될 것으로 답했고 나머지 49%는 '폭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 강진 일주일...사망자 161명으로 늘어

연락두절 103명·부상자 560명 강추위·많은 적설량에 구조 난항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8일 현재 지진으로 16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시카와현은 지난 1일 강진으로 이날 오전 9시 현재 현내에서 161명이 사망하고 565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 사망자 수는 와치마시와 스즈시 각 70명, 아나미즈 11명, 나나오시 5명 등이다.

사망자는 모두 이시카와현에서 나왔다.

이시카와현이 집계한 '연락 두절' 주민 수가 103명이나 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진 사망자가 100명을 넘는 것은 지진 관련 사망자를 포함해 276명이 숨진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당국은 인명 구조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지진 발생 이후 72시간을 훨씬 넘겼지만 구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 내린 많은 눈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마저 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적설량은 스즈시 13cm, 나나오시 12cm, 와치마시 9cm 등이다.

또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이날 최저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온 것도 생존자 구조에 악재다.

도로 파괴 등으로 왕래가 어려운 고립 지역의 주민도 와치마시와 스즈시를 중심으로 23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